



중학도 역시 EBS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EBS 중학

뉴런



국어 2



무료 강의 제공



문학

1

문학 작품의 관점

2

문학 작품의 재구성

3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대단원 평가

문학 작품의 관점

- 학습 목표**
-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더 알아 두기

- ✦ **작품의 말하는 이와 관점**
- **작품의 말하는 이:** 작가를 대신하여 작품 속에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존재
 - **말하는 이의 관점:**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되고 같은 사건을 서술하더라도 작품의 분위기나 주제가 달라질 수 있음.

1 시의 화자

(1) 시의 화자의 개념

- 시인을 대신하여 시 속에서 시인의 생각과 정서를 전달하는 존재이다.
-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일정한 성격, 태도, 목소리를 부여한 시적 장치이다.
- ‘화자’ 또는 ‘시적 화자’라고도 한다.

(2) 시의 화자의 역할

-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시의 분위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3) 시의 화자의 유형

-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나’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인의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허구의 인물이다. 시인과 유사한 존재, 시인과 성별이나 연령 등이 다른 사람, 사물이나 동식물 등을 화자로 내세운다.

예

아랫목에 모인 /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 아버지가 왔다.

- 박목월, 「가정」

나는 산입니다.
밤새도록 나는 혼자서
촉촉이 비를 맞고 서 있지요.

- 유치환, 「산 3」

예로 개념 확인

(가) 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나) ②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처녀 애입니다. 내 이름은 박옥희이고요. 우리 집 식구라고는 ②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니와 나,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중략>

②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달걀 장수 노파가 오면 한꺼번에 열 알도 사고 스무 알도 사고, 그래선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으레 나도 한 알씩 주고 그래요.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시인이 자신의 상상이나 체험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표현하며, 객관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예 머언 산 청운사 / 낡은 기와집 // 산은 자하산 / 붉은 녹으면 //
 느릅나무 / 속잎 피어 가는 열두 굽이를 //
 청노루 / 맑은 눈에 // 도는 / 구름
 - 박목월, 「청노루」

2 소설의 서술자와 시점

(1) 서술자의 개념

-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이다.
- 소설의 사건을 이야기해 나가는 주체이다.

(2) 서술자의 역할

- 인물을 소개하고 사건을 전달하며 장면을 묘사한다.
- 서술자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의미가 달라진다.

(3) 소설의 시점

- 시점의 개념: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와 시각
- 시점의 종류

위치	태도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	관찰한 내용만 서술
이야기 안		1인칭 주인공 시점 : 등장인물인 '나'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함.	1인칭 관찰자 시점 : 등장인물인 '나'가 관찰자가 되어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함.
이야기 밖		3인칭 전지적 시점 : 서술자가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성격 등을 다 알고 서술함.	3인칭 관찰자 시점 : 서술자가 객관적 태도로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함.

더 알아 두기

✦ 시점의 종류와 특징

- 서술자의 위치에 따른 대명사의 사용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나', '우리' 등과 같은 대명사를 사용함.	'그', '그녀',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함.

- 시점의 특징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줌.
1인칭 관찰자 시점	'나'의 눈에 비친 제한적 세계만을 다루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함.
3인칭 전지적 시점	서술자가 사건 전개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3인칭 관찰자 시점	독자의 무한한 상상이 가능하며, 대상에 대한 해설이나 평가는 독자의 몫임.

① **시의 화자**: 이 시의 화자는 시 속에서 '나'로 드러나 있다. '나'는 자신을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나룻배는 행인이 자신을 훑발로 짓밟아도 아무 불평 없이 행인을 안고 물을 건너간다. 이렇게 시인은 시의 화자를 '나룻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당신'에 대한 '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소설의 서술자와 시점**: 이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이다. '나'는 여섯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로, 작가가 설정한 허구의 인물이다. 그런데 '나'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니'와 '사랑 아저씨'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즉, 이야기 안의 등장인물인 '나'가 관찰자가 되어 주인공인 어머니와 사랑손님(사랑 아저씨)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인 '나'가 천진난만하게 들려주는 달걀 이야기는 어머니가 사랑손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독자에게 알려 준다. 이렇게 가식 없고 순수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면 어머니와 사랑손님 간의 사랑을 맑고 순수하게 그려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엄마 걱정 | 기형도

- **해제:** 이 작품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이 된 '나'를 시의 화자로 설정하여,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며 느낀 화자의 외로움과 서글픔을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
- **주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외롭고 쓸쓸한 기억

내용 연구

엄마와 '나'의 상황

엄마	'나'
열무를 팔러 시장에 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못함. → 가난으로 인한 고된 삶	빈집에 혼자 남아 엄마를 기다리며 숙제를 함. → 가난으로 인한 외로움

구절 풀이

-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고단한 몸을 끌고 지쳐 걸 어오는 엄마의 발소리를 시든 배추 잎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가난한 삶에 지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빈집에 홀로 남아 엄마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쓸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이다.

낱말 풀이

- * **열무:** 어린 무.
- * **타박타박:** 조금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양.
- * **윗목:**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불길이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가난한 형편임을 짐작하게 함.

시장에 간 우리 엄마

「: 안 오시네를 조금씩 변형하여 애타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해가 진 지 오래 됨. → 시간적 배경: 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어린 시절의 화자(과거) → 빈방에 홀로 남겨진 화자의 서글픈 처지를 표현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가난한 삶에 지친 엄마의 모습을 표현함.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화자의 정서: 무서움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화자의 정서: 외로움과 서글픔

▶ 빈집에서 을/를 기다리며 외롭고 무섭고 서글퍼던 시절의 '나'

아주 먼 옛날

「연의 내용 → 과거 회상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어른이 된 화자(현재)

그 시절, ① 내 유년의 *윗목

어린 시절의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

▶ 어린 시절을 하며 안타까워하는 이/가 된 '나'

01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각 행에 동일한 글자 수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 대신 쉽고 일상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양한 종류의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④ 현재-과거-현재로 이어지는 구성을 통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2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 ② 과거 유년 시절의 서글픔이 현재의 '나'에게 남아 있다.
- ③ 어른이 된 '나'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 속의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의 삶도 함께 떠올리고 있다.

03 이 시의 주된 정서와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밝고 소란스럽다. ② 외롭고 쓸쓸하다.
- ③ 따뜻하고 정감 있다. ④ 엄숙하고 고요하다.
- ⑤ 급박하고 긴장감이 돈다.

04 이 시의 '엄마'와 '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엄마는 열무를 팔러 시장에 가셨으나,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나'는 혼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늦은 밤, 빈집에서 천천히 숙제를 하고 있던 '나'는 빗소리를 듣다가 결국 훌쩍거리고 만다. ㉤그런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05 이 시의 화자가 ㉠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 조건 ▶
 • '윗목'의 이미지와 관련지어 쓸 것.
 • '자신의 어린 시절'로 시작하는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이 시의 화자의 상황과 정서

	1연	→	2연
상황	과거: 어린 시절에 '나'는 어두운 밤, 빈집에 혼자 남아 숙제를 하며 시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리고 있음.		현재: 어른이 된 '나'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과 엄마의 모습을 생각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짐.
정서	외로움, 무서움, 서글픔		안타까움.

이 시에서는 어른이 된 화자인 '나'가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1연에서는 과거에 느꼈던 심정을, 2연에서는 그 과거에 대해 현재 느끼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시인은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의 '나'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어린 시절에 느낀 외로움과 서글픔이 어른이 된 현재의 화자에게도 남아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이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내 유년의 윗목'
빈방에 홀로 남겨진 화자의 외로움과 서글픔	가난하고 고된 삶에 지친 엄마의 모습	어린 시절의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

2

지금 연구

귀뚜라미 | 나희덕

- **해제:** 이 작품은 자신의 울음소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귀뚜라미의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귀뚜라미를 화자로 내세워 고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주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소망

내용 연구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 시구

-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소망

구절 풀이

- **풀잎 없고 ~ 좁은 틈:** 귀뚜라미가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며 머무르는 장소로, 화자가 처한 어려운 환경과 고달픈 현실을 의미한다.
-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화자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런 고된 현실에서도 자신의 울음소리가 노래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남고자 하는 화자의 강한 생명력과 의지를 느끼게 한다.

낱말 풀이

- * 타전: 전보나 무전을 친.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 계절적 배경: 여름
나(귀뚜라미)와 대조되는 존재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시의 화자(귀뚜라미)

▶ '나'의 울음은 아직 이/가 아님.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고달픈 현실, 고된 환경
 •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 타전 소리가
지금 '나의 울음소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에 불과함.(청각적 심상)
 ㉠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나의 울음소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길 바램'
 ▶ '나'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을/를 주는 노래가 되길 바라며 고된 현실을 견뎌.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여름 화려한 매미 소리에 묻혀 '나의 울음소리가 전달되지 않음.'
 그 소리 견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내가 기다리는 때'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
고달픈 현실
 ㉡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나의 울음소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노래가 되길 바램.'
 ▶ 이/가 되면 '나'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있는 노래가 되길 간절히 바램.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미 상관의 기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주로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의인화된 화자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속담을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인상적으로 전하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2 이 시를 감상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아야 해.
- ②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해.
- ③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
- ④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야 해.
- 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해.

03 ㉠과 ㉡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 ② 좌절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앞날을 낙관하고 있다.
- ④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내적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보기 ▶

- ㉠. '나'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 준다.
- ㉡. '나'의 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나'가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을 직접 드러낸다.
- ㉣.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짐작하게 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05 이 시에서 ㉠과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찾아 쓰고, 그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 조건 ▶

- 함축적 의미를 쓸 때 명사로 끝낼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 이 시의 화자와 시인의 의도

이 시의 화자
 '나(귀뚜라미)'는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며 고된 환경을 참고 견디고 있음.



시인의 의도
 • '나(귀뚜라미)'를 화자로 설정하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 지금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고달픈 현실을 극복하고 언젠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시인으로서의 간절한 소망을 '나(귀뚜라미)'를 화자로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함.

○ 이 시에 쓰인 시어의 함축적 의미

매미
 현재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려한 존재



'나(귀뚜라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날을 기다리는 존재

매미 때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나(귀뚜라미)'가 어려운 환경을 참고 견디고 있는 시기



맑은 가을
 '나(귀뚜라미)'가 기다리는 시간, '나(귀뚜라미)'의 소망이 이루어질 시기

(내) 울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의미 없는 '나(귀뚜라미)'의 소리



노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의미 있는 소리

- **해제:** 이 작품은 농촌을 배경으로 마름의 딸과 소작인의 이들의 풋풋한 사랑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향토적인 소재와 토속어의 사용으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주제:** 사춘기 산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

내용 연구 역순행적 구성

오늘 (가)	점순이 또 닭싸움을 붙임.
-----------	----------------



나흘 전 (나,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순이 '나'에게 말을 걸고 감자를 줌. • '나'는 점순이 준 감자를 거절함.
----------------	---

구절 풀이

- **오늘도 또 ~ 막 쫓기었다:** 점순네 수탉과 '나'의 수탉의 닭싸움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며 그럴 때마다 '나'의 수탉이 항상 점순의 수탉에게 당해서 '나'가 약이 올라 있는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 **나흘 전 감자 ~ 잘못된 것은 없다:** 과거 회상(나흘 전)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점순이 닭싸움을 붙여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 감자 사건 이후부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낱말 풀이

- * **햇소리:** 닭이 해를 치는 소리.
- * **얼렸다:**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짐승이 한데 섞여 어우러졌다.
- * **쪼간:** 어떤 사건이나 일.
- * **쌩이질:** 한창 바쁠 때에 쓸데 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짓.
- * **긴치 않은:** 꼭 필요하지 않은.
- * **항차:** 허물며.
- * **할금할금:** 결눈으로 살그머니 계속 할거 보는 모양.
- * **뿌듯이:**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서 벅차게.
- * **황:** 중도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빠르게 가는 모양.

(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쫓기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 하고 닭의 *햇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 점순네 수탉에게 또 쫓기는 '나'의

(나)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밭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앓고 서로 만나도 본적만적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 또는, /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확 끼치는 굵은 갑 자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 '나'에게 을/를 주는 점순

(다) “느 집엔 이거 없지?” /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췌근췌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걸 또 뭐야, 싫어서 그때야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었디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황 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 '나'의 거절에 무안함을 느끼고 이가 난 점순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요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② 농촌 공동체의 암울한 현실을 그려 내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통해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전달하고 있다.

02 이 글에 쓰인 시점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인 '나'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② 독자들은 '나'가 직접 이야기해 주는 듯한 친근함을 느낀다.
- ③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관적일 수 있다.
- ④ 독자들은 소설 속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 ⑤ '나'가 알려 주지 않은 것을 파악하려면 독자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03 (나)와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나'와 '점순'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나' | '점순' |
| ① 영악하다. | 조신하다. |
| ② 눈치가 없다. | 적극적이다. |
| ③ 소극적이다. | 어리숙하다. |
| ④ 적극적이다. | 억척스럽다. |
| ⑤ 통명스럽다. | 소극적이다. |

04 (나)와 관련하여 이 글의 '나'가 독자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나': 점순이 왜 그렇게 귀찮게 나에게 말을 걸고,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웃은 거예요?
 독자: 점순이 (㉠). 점순이 (㉡)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지요.

- 조건**
- ㉠의 내용을 넣어 문장이 완결되도록 할 것.
 - ㉡는 ㉠의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두 가지 찾아 각각 '~(ㄴ)'의 형태로 쓸 것.
 - '나'를 '당신'으로 호칭하여 쓸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인물의 성격

'나'	'점순'
• 점순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름. • 점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	• '나'에게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함. • 호의를 거절당하자 '나'를 괴롭힘.
↓	↓
순박하고 어리숙함.	적극적이고 영악함.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과 효과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시점 • 독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친근감과 신뢰감을 줌. • 주인공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내용에 한계가 있고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음.
------------------	--

⇒ 이 소설에서 '나'는 점순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내용 연구

이 글의 소재의 의미와 기능

감자	닭싸움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을 드러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는 점순의 의도를 드러냄.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점순의 마음을 드러냄.

↓
'나'와 점순 사이의 애정과 갈등을 표현함.

구절 풀이

- 설혹 주는 감자를 ~ 다 뭐냐: '나'가 점순의 감자를 거절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 그래도 '나'는 소작인과 마름이라는 집안의 신분 차이도 있는데,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의 말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음을 알 수 있다.
-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 먹여 보았다.: '나'가 닭싸움에서 이겨 보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행동으로, '나'의 순박한 모습을 드러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낱말 풀이

- *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 * 배재: 땅을 소작할 수 있는 권리.
- * 면두: '벧(닭이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조각)'의 방언.
- * 거지반: 거의 절반.
- * 쟁그러워: 원래는 '징그럽다'보다 작은 느낌을 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고소하다'의 뜻.
- * 꿇는다: (비유적으로) 은근히 해를 입어 골병이 든다.
- * 빠드러지는: 굳어서 뻣뻣하게 되는.

(가)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나가 점순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이유, ‘나가 점순에게 소극적인 근본적 이유’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인 점순네와 소작인인 '나'의 집과의 관계

(나)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싸움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싸움이라면 화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같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앓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피어 내다가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대비책을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던지시 장독계로 갔다. 싸움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계로 들이밀고 먹여 보았다. ‘나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며 복수를 다짐함.’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지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 수탉에게 을/를 먹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나'

(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 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싸움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 나는 두 손으로 불기작을 두드리며 연방, ‘자신의 수탉이 공격을 당하자 언짢음.’ “잘한다! 잘한다!” /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쳤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낮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앙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질끔 못하고 막 *꿇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점순은 ‘나의 복수가 실패하자 고소해함.’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 결국 점순네 수탉에게 지고 만

(라) 나는 하릴없이 닭을 반듯이 눕히고 그 입에다 쫄련 물부리를 물리었다. 그리고 고추장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킁킁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데 댈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두어 종지가랑 고추장 물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빠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화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 고추장을 먹고 맥을 못 추는 우리 수탉

05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행동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 ② 인물과 사건의 외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현재형 문장을 섞어 사용하여 행동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순박하고 눈치 없는 ‘나’가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우직하고 순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06 이 글에서 ‘점순’과 ‘나’가 보인 행동의 이유를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점순이 큰 소리로 웃은 이유는 ‘나’를 약 올리기 위해서다.
- ② ‘나’가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 이유는 점순네 수탉을 이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 ③ ‘나’가 점순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이유는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 ④ ‘나’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참는 이유는 감자를 거절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 ⑤ 점순이 계속해서 닭싸움을 붙이는 이유는 어떻게든 ‘나’가 반응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07 이 글의 소재인 ‘감자’와 ‘닭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거절한 ‘감자’에는 점순에 대한 ‘나’의 우월감이 드러나 있다.
- ② 점순이 준 ‘감자’에는 ‘나’에게 양갈음하려는 점순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③ ‘나’가 붙인 ‘닭싸움’에는 점순에 대한 ‘나’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점순이 붙인 ‘닭싸움’에는 ‘나’에게 사과하고 싶어하는 점순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감자’와 ‘닭싸움’은 모두 ‘나’와 점순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08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먹고 자는 일을 주인집에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 먹을거리가 모자라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 거듭하여서 아주 좋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 꺼림칙하거나 불쾌하여 마음이 언짢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 기세가 꺾여 자신감이 없고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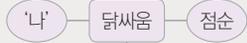
○ ‘감자’ 사건과 인물의 심리

	점순이 ‘나’에게 ‘감자’를 줄 때	‘나’가 ‘감자’를 거절했을 때
점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이 볼까 봐 조심함. • 나를 위해 특별히 마음 쓰는 것임을 생색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함. • 굴욕감과 노여움을 느낌.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순의 말에 자존심이 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순의 반응에 무척 놀람. • 점순이 화가 난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함.

○ 이 글의 해석성

-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점순의 마음을 정작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웃음을 유발함.
- 비속어와 방언 등을 사용하여 ‘나’의 어리숙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웃음이 유발됨.
- ‘나’의 어리숙함과 점순의 영악함이 대조되어 웃음을 유발함.

내용 연구
담싸움의 역할



-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점순의 의도적인 행동
- '나'와 점순 사이의 갈등의 매개체이면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구절 풀이

-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 뭘는지 모른다.: 닭을 죽이고 난 '나'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다. 그리고 점순네 심기를 건드렸으니 이제 땅도 빼앗기고 집에서 내쫓기게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나'는 점순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점순이 자신을 구해 주기라도 하듯 무턱대고 대답부터 하였다. 점순은 다음부터 자기의 호감을 거절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것인데, '나'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낱말 풀이

- *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 * 목정강이: 목덜미를 이루고 있는 뼈.
- * 호드기: 봄철에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이나 짙막한 밀짚 토막 따위로 만든 피리.
- * 빈사지경: 반죽음.
- * 격실격실하: 성질이 너그러워 말과 행동을 시원스럽게 하게.
- * 단매: 단 한 번 때리는 매.
- * 홉뜨고: 눈알을 위로 굴리고 눈시울을 위로 치뜨고.
- * 얼김: 어떤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
- * 알싸한: 매운맛이나 독한 냄새 따위로 콧속이나 혀끝이 얼얼한.

(가)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 놓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화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사건이 과거에서 현재(오늘 아침의 사건)로 돌아옴.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해도 고년의 *목정강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건성건성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케 내려왔다.

저지반 집게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송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 점순에게 화가 나서 부리나케 산을 내려오는 '나'

(나)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히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옆 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외모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점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냄.

▶ 점순네 수탉을 (으)로 때려서 죽이는 '나'

(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 는지 모른다. '나는 점순네 수탉을 죽이고 난 후, 뒷일을 걱정함.'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 “그럼, 너 이담부터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무엇을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나는 점순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함. (나의 어리숙함)'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냄. (점순의 영악함)'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 일의 결과가 두려워 울어 버리는 '나'를 달래는 점순

(라)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펍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똥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점순의 적극적인 행동이 드러남.

▶ 속에서 아찔한 기분을 느끼는 '나'

'나는 미묘한 사랑의 감정을 느낌.'

09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나’는 점순에 대해 좋게 생각했었다.
- ② ‘나’는 점순의 매정함에 화가 많이 났다.
- ③ ‘나’의 집안은 점순네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
- ④ ‘나’는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이기로 작심한다.
- ⑤ ‘나’는 점순네 수탉을 죽인 후 뒷일을 두려워한다.

10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둘 사이에 비밀이 생겼으니 교감이 커질 것 같아.
- ② 점순에게 약점을 잡힌 ‘나’는 앞으로 점순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 ③ 둘이 화해했으니 점순은 ‘나’와 사귄다는 사실을 마을에 자랑할 것 같아.
- ④ 점순네 수탉에게 당하기만 하는 ‘나’의 수탉은 ‘나’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
- ⑤ 수탉을 죽이고 터져 나온 ‘나’의 울음에는 그동안의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도 반영된 것 같아.

11 ㉠에 드러난 ‘나’의 심리와 어울리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②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③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 눈 흘긴다.

12 이 글의 갈등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의 역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드러낸다.
 ㉢.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 갈등이 진행되면서 다른 인물과의 대립이 나타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3 다음을 참고하여 ㉢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이 소설에서 ‘동백꽃’은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드러내 주는 한편, 두 남녀의 순박한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 조건 ▶
 • ‘나’의 심리 변화를 포함할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 ‘알싸하고 향긋한 노란 동백꽃’의 의미와 역할

직접적인 의미	봄에 피는 동백꽃(생강나무 꽃)의 알싸한 내음
간접적인 의미	사춘기에 접어든 ‘나’가 점순에게 느낀 미묘한 감정

→
 •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나’와 점순 사이에 생겨난 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함.
 • ‘나’와 점순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사랑의 분위기를 형성함.

○ 이 작품의 역순행적 구성 방식

이 작품은 ‘현재 - 과거 -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닭싸움을 매개로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

